

<특 집 : 도서관에서 만화책 어떻게 할 것인가?>

만화, 이제는 함께 누리자!¹⁾



■ 신 성 식 사)우리만화연대 사무국장, toonor@naver.com

도서관에서 만화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는 것은 일단 그 주제와 상관없이 만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적지 않은 기대를 갖게 한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만화가 더 많은 곳에서 보여 지고 이야기 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점이 왜 중요한가는 조금 미루고 최근에 한 신문에 실린 글을 인용해 보겠다.

‘문예사에서 만화는 글과 그림이 결합된 획기적인 표현양식의 탄생을 의미한다. 글과 그림의 결합은 연금술과 같은 것이다. 이 연금술의 효과는 ‘보여주며 말하기’ 라는 강력하면서도 우월한 형태의 전달 매체를 탄생시켰다.’ -김용석의 대중문화로 철학하기(한겨레 4월 24일)-

만화는 하나의 매체이다. 따라서 만화가 좋거나 또는 나쁘다는 논의는 다분히 추상적이고 소모적일 수 밖에 없다. 이제는 하나의 매체로서 만화 전체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구체적인 이용, 더 나아가 향유의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본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만화는 좀 더 공적인 영역에서 회자되지 못하고 있는가? 불량이라는 굴레를 벗지 못하는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 부분 즉, 한국사회에서의 만화의 위상에 대한 문제는 그것만으로도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오늘의 토론을 더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 사전에 얘기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것이 앞서 좀 더 많은 곳에서 만화가 얘기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이다. 지금까지도 한국에서 만화를 ‘수용’ 한다는 것은 사적 체험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

1) 이 글은 저자의 허락을 받아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토론회 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을 일부 수정 후 본지에 게재하였습니다. ■ 편집자 주

부분이다. 골방에서 혼자 보는 것이 다인 것이다. 영화처럼 일정한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감상한다거나 문학처럼 갖가지 독후와 평론으로 이어지는 것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대중문화라는 속성상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극히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침으로써 만화가 갖고 있는 도구적 효



용성만 강조된 것이다. 만화의 탁월한 소통구조는 특히 교육심리학적면에서 이미 그 효용성이 인정되어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 자체가 만화적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이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텔레비전의 각종 프로그램 또는 인터넷의 갖가지 동영상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자막을 보면 그가 말풍선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만화를 어떻게 즐길 것인가? 어떻게 다루는 것이 만화를 더 풍부하게 하고 동시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실제적이라는 것이다.

영화 중에는 꼭 봐야 할 불후의 명작과 함께 삼류의 폭력적, 선정적인 작품도 있다. 소설에서도 인류가 함께 누려야 할 자산으로 인정받는 작품이 있는 반면에 나무가 아까운 출판물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화를 없애야 한다고 느끼거나 소설 자체를 도서관에서 빼내라고 하지는 않는다. 나름의 사회적, 문화적 기준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며 거르기도 하면서 향유한다. 이제 만화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다가가야 할 것이다. 만화를 더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내고 더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즐기자. 이것이 도서관의 만화에 대한 실질적인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㉞